하느님

1.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 예, 하느님! 저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변함없으신 분, 하느님... 하느님... 당신의 한결같음, 당신의 고요, 당신의 침묵은 저를 놀라게 합니다. 당신은 같으신 분, 그 무엇에도 바뀌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사랑에 빠지신 분, 지칠 줄 모르는 연인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침묵 앞에 다가섰고 늘 같으신 당신의 눈, 삶을 부서뜨리고 그 부서진 삶을 그대로 당신 발치에 남겨두는 저 강렬하고 꿰뚫는 듯한 당신의 두 눈과 마주쳤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참으로 숨 막힐 듯이 강렬하고 오묘한 당신의 침묵! 당신이 잠자코 계시기에 모든 것이 너무도 조용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은 공기를 가릅니다. 그 누구도 감히 소리내지 못하고 바

람마저 멈춰 서 버린 것만 같습니다. 어제는 몇 방울의 물소리가 들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저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부끄러워 이내 소리를 죽였습니다. 깊은 정적이 감돌고 있습니다. 태양은 감히 빛을 내지 못하고 구름도 흐르기를 그쳤습니다. 별들은 저 멀리서 말없는 손짓을 보냅니다. 모두가 고요합니다. 하느님... 하느님... 당신도 말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침묵은 얼마나 좋은지! 이는 바로 당신!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하느님... 이 고요의 대기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 그 고요 속에서 당신 발치에 엎드려 시간을 소모할 수 있는 권리가 가련한 영혼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권리를 위한 대가는 너무도 비싼 것, 거의 아무도 이 권리를 허락하려 하지 않습니다. 매일 매일 하느님의 발치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세상의 눈에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하느님... 당신은 그 권리를 제게 주셨고 저는 이 권리를 이용하여 그 누구의 힐책도 받지 않은 채 저를 당신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느님...하느님...당신 발치 앞에 삶이 부서져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작은 아이가 안전하게 숨을 곳을 찾을 양이면 자기 엄마에게 달려가 그 품 안에 숨어버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엄마의 가슴에 구멍을 내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엄마가 자기를 꼭 숨겨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아이의 장난으로 엄마를 부서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느님...! 제가 그 아이보다 더 강하고 당신이 그 어머니 보다 약하다고는 감히 두려워 말씀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아침 당신께 기대어 얼마나 힘껏 밀었는지 금새 당신 가슴에 금이 생기고 당신께서 구멍을 만들어 주셨기에 저는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이미 거기에는 하느님...! 말고 다른 것은 볼 수 없었습니다. 문은 닫혀있었고 힘찬 고동 소리만이 들려올 뿐 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 사랑, 침묵... 아, 하느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이런 것 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가슴을 뚫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사실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문은 반 틈 열려있었고 누군가 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간단하였습니다. 단지 침묵 속에서 하느님 발치 앞에 무너지는 것으로 족하였습니다.

책들도 말하지 않고 사물들도 말이 없습니다... 모두들 하느님의 침묵에 가담해버렸습니다. 하느님도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분의 침묵은 모든 것을 채웁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 하느님의 비밀입니다.

하느님... 하느님... 저는 당신의 침묵이 얼마나 좋

은지요! 당신의 동굴 안에 빛나는 빛이여, 당신 술광 안에 감도는 취흥이여! 하느님의 끝없는 해변, 침묵의 심연이 얼마나 좋은지요!

"맛스런 그 불꽃 안에
영혼은 탈바꿈되나니
그 불꽃 내 안에 느끼노라
어서 빨리! 남김 없이
온통 나는 타 없어져가노라."

"어서 빨리"... 예 하느님, 당신은 급하십니다. 저도 그걸 느껴요, 하느님께서 서두르고 계시옴을... 설사 제가 느끼지 못한다 할 지라도 거기 제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타 들어가고 있음을...! 오직 사랑과 충실, 평정만이 남게 됩니다.

하느님이 저를 만지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들 삶 속에 찬란한 신비들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죽는 이승에선
비록 어둠을 겪을지라도
그다지 크잖은 불행
빛이야 비록 없다 해도
하늘엣 생명을 지니노라."

예, 그렇습니다. 하늘엣 생명이 제게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의 생명! 나의 하느님, 당신 생명이 제게 있을진대 어둠 속을 헤맨들 무슨 상관 있습니까?

"점점 눈 멀어져 가노라면
사랑이 이런 삶 내리는 것
잠자코 있는 영혼에게 이런 사랑 있나니
빛 없이 어둠에 살아가노라."

예, 소경이 되면 될수록...! 모든 것에 해명을 요구하는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 수학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하느님 ... 하느님..., 저를 소경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당신 사랑의 빛 안에 소경이 되고 싶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저 온전히 의탁하고 싶습니다.

하느님...하느님...,당신은 얼마나 견고하고 흔들림 없고...무변하신 분인지...! 하느님... 하느님...,당신의 무변함, 당신의 한결같음이 저를 미치도록 만듭니다.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사랑이 벌써 나를 장님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 것도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왜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대답하지 말아 주세요. 하지만 수 없이 당신께 물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왜 저를 사

랑하시는 겁니까? 당신 사랑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무한한 자비가 저의 비참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혹, 부자가 넘쳐나는 보물 창고를 정리하기 위해 가난뱅이가 필요하듯 당신께 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학자가 자기 지식을 발휘하기 위해 무식쟁이를 필요로 하듯이 당신께서 저를 향해 다가오시는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이는 훨씬 더 심오하고 하느님스러운 것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고 잴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무엇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작은 피조물을 어느 정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 그 존재의 심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루 또 하루, 한 시간 또 한 시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느님을 바라볼 때, 우리 두 눈은 그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빛이 삶 속으로 들어오고, 온 존재는 하느님의 반영이 됩니

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십시오... 그대의 온 생애를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 소비하십시오. 두 눈이 으스러질 때까지 소비하십시오. 세상이 그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생명의 하느님이 누구신지, 사랑의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3. 영원하신 하느님! "저의 본성은, 당신의 신적 본성 안에서 설명됩니다."(성녀 카타리나) 이것은 인간 실존의 외침이며, "인간을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첫째 목적이자 궁극적인 목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공의회의 강한 요구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대 영혼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대의 본성은 하느님의 본성 안에서 설명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거기 그대 삶의 내면 깊은 곳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너를 찾아라." 하느님 안

에서 그대를 찾고 만나게 될 때 그대 인격의 완전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4. 하느님... 하느님... "당신은 진정으로 숨어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의 신비 속에 숨으실 수 있으셨습니까?

하느님... 육화되시고, 낮추시고 밀알처럼 밟혀지신 하느님... 미쳐버린 하느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느님!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요, 이방인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신 하느님"(1코린 1, 23).

하느님... 왜 그렇게 가까이 다가 오십니까..., 왜 그토록...? 때때로 당신의 가까이 계심은 저를 눈멀게 하고 당신의 근접함은 저를 떨게 하며, 당신의 빛은 저를 어둠으로 몰고 갑니다. 하느님... 하느님... 당신의 신비로운 암흑 속으로 들어가, 당신의 존엄

을 관상하며 머물러 있도록 제게 힘을 주소서!

5.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암사슴 보다 제 영혼이 당신을 더 목말라 하고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6. 지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느님이 하느님이 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느님이 되시기 위해 무엇보다도 사랑과 용서, 자비: 그분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도록 그대는 없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대 자신의 가난과 비참, 그대의 죄와 허무를 맛보아야 합니다.

7. 하느님의 손이 그대를 잡으시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그분은 하느님이시고, 그대는 허무입니다. 그분은 불이시고 그대는 그 불에 타는 지푸라기입니다.

그분은 폭풍우이시고 그대는 그분의 거룩한 분노에 휘말린 낙엽입니다. 그분은 하느님..., 전부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신비로운 그분의 품에 던져진, 열정적인 그분의 화산에 사라져버린 허무입니다.

8. 성면을 바라보면서 영혼은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분께 물어 보십시오. 하느님, 당신은 어떤 맛을 지니셨습니까? 또한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당신 사랑을 체험으로 느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 지극한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기까지 충실할 수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하십시오. 성면께서 참된 사랑의 비밀을 그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9. 심연 속에 사라져버린 보잘것없는 물방울인 그대는 무엇을 원합니까?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무한함이 결코 고갈될 수 없을 진대 그대는 무엇을 더

바랍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 저의 하느님이신 당신을 뵈옵는 것입니다.

10. 하느님은... 하느님이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1. 절대적인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화살이 과녁을 향하여 날아가듯이 절대자를 향해 그대를 던지십시오. 하느님께서 그대의 과녁이시니, 영원히 그분 안에 자신을 못 박으십시오. 오직 하느님만이 그대의 존재를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영원토록 그대를 채워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느님에게 심취한 사람이 되십시오.

12. 하느님의 지체하심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만큼 지체하시도록 맡겨 두십시오. 그분이 그대 영혼 안에서 일하게 하십시오. 그분의 신비로운 발걸음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는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지체 없이 행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하느님께 계산서는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그대 영혼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의 걸음걸이로 걷게 하십시오... 신비로운 하느님의 발걸음이여! 우리의 서두름과 조바심보다 그분의 고요함이 더욱더 속력이 있고, 그분의 평화로운 발걸음에 더 큰 진전이 있습니다.

13. 저의 작음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당신께서 저의 힘이십니다. 당신은 제 영혼 안에 거하시며, 거기 제 존재의 깊은 곳에서 당신의 영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그 고요한 물을 흔들어 깨우시려고 제 평온한 호수에 떨어지셨나이다. 제 영혼의 호수에 상처를 내셨나이다.

예, 하느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당신의 탄식으로 저를 깨워 주시고 저의 호수에 상처를 내시며, 영원한 것에 대한 감수성을 주시고, 무한한 것에 대한 안테나를 주시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당신 성벽의 신비로운 그늘로 저의 밤을 지켜 주소서.

14. 우리는 그분의 증거자들입니다. 증거자는 삶을 바칩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죽음인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느님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오 심오한 신비여!

15.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며 영혼 안으로 들어 오시고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점령하십니다. 변치 않는 하느님께서 당신 안에 저를 고정시켜주신다면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느님께서 나의 존재를 점령하시는 심오한 신비여....!

16. 그대의 영혼은 무슨 맛을 지니고 있습니까? 모두가 하느님의 맛이 아닙니까? 그분께 힘차게 외치십시오. 하느님... 하느님... 당신은 저의 집, 저의 둥지, 저의 바위, 저의 제단이십니다.

제가 디딜 땅마저 없을 때, 당신께서는 제가 숨쉬는 공기가 되시고 저의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17.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노력은 헛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므로 영혼은 평화

로워지고 판단력은 안정되며, 생각은 차분해지고 하느님의 신비로 젖어 듭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실 때 가장 힘든 밤들 조차도 신비로운 빛으로 변화 됩니다.

18. 하느님... 하느님... 당신이 하시는 일에 승복하며 흠숭 드리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무한한 사랑에 사로잡혀 거기서 당신과 함께, 생생한 침묵 속에서 영원하신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19. 신비 중에 신비는 피조물들을 향하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 사랑 안에 그대의 힘, 그대의 신비와 놀라움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대가 하느님 안에 잠겨 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느님, 오직 하느님, 언제나 하느님, 신비 중에 신비 가운데 싸여계신 하느님!

20. 아주 높이, 드높이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가득 채우시는 분인 하느님께, 그대 영혼의 하늘을 차고 넘치게 해 달라고 말씀 드리십시오.

21. 하느님의 손은 얼마나 크신지...! 그 안에 드넓은 대양과 모든 생명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손 안에 우리는 일치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손 안에 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손은 하나 되게 하고 갈라 놓지 않습니다.

이 손 안에 그대의 이름이 쓰여 있으며 아무도 그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거기 또한 우리 모두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헤어지지 않고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22.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 이는 그대 존재의 외침이 아닙니까? 그대 영혼의 음악이 아닐까요? 그대의 존재를 가득 채우고, 차지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까?

만일 그대가 하느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하느님 아닌 다른 생각들이 그대를 혼란케 하고, 차지하며,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까?

23. 오직 하느님만이 삶을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다 허무하고 가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느님 안에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평화 속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십시오.

24. 하느님과 절친한 친구가 되십시오. 그대의 제일 친한 친구가 하느님이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이름에 반해 버리고 그대 순례 여정 내내 수없이 반복하여 부르십시오. 그대 영혼을 이 이름으로 가득

채우고 그대 삶으로 말하십시오.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

25. 하느님께 열중하십시오. 미치도록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느님을 바라본 눈은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불을 지릅니다. 그대의 두 눈이 세상을 태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6. 그대는 모두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대의 시간도, 그대의 영원도 모두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망설입니까? 이미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이미 영원한 나라의 시민입니다. 아직은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27. 영혼의 심부를 태워 하느님화 시키는 그 불화살을 영혼 안에 어떻게 새겨 넣을 수 있는지 그대

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제게 말해 주십시오.

만일 제가 그대의 영혼 안에 저 신비스러운 외침, 생명의 외침, 용감한 사랑의 외침을 새겨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이름도 모르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무엇...! 그러나 언제나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그 무엇을 그대 안에 새겨 넣을 수만 있다면...

오직 그분... 언제나 그분... 모든 것이 그분.

28. 하느님... 하느님... 당신과 함께 생생하고 불타는 대화를 나누며 저의 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의 밤을 당신의 빛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저의 겨울을 당신 사랑의 불 속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29. 하느님... 하느님... 저로 하여금 당신 사랑에 현

혹되어 사랑스런 당신의 깊은 침묵 안에 잠기게 하소서... 제 고통의 시간들 안에서 사랑에 빠진 이들의 노래, 지상에서 당신을 뵙기에 합당한, 마음이 깨끗한 이들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소서. 당신 현존 안에 저를 부수고, 당신을 바라보며 제 눈이 타 들어 가게 하소서.

30. 하느님... 하느님... 눈먼 사람이 되어 당신의 빛을 통과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빛, 결코 꺼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 당신의 빛을 저에게 주십시오. 결코 지지 않는 당신 생명의 헤아릴 수 없는 신비를 저에게 주십시오.

31. 하느님 안에 사라진 영혼... 그래서 아무도 그대를 찾아낼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그분의 무한하심에, 그분의 사랑에 잠기십시오. 교회는 하느님 안에 사라져 버린 영혼들을 필요로 합니다.

32.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무한한 갈망들을 채워 주십니다.

33. 하느님!... 이것이 그대의 언어, 그대의 성소, 그대의 기도, 그대의 생명입니다. 하느님은 그대 존재 깊은 곳에 계시며 무한에 대한 갈증을 불러 일으킵니다. 비록 그대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그분 안에 편안히 쉬십시오... 그리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느님... 하느님...! 그러면 한갓 먼지에 지나지 않는 그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그대의 빈 공간을 온통 채울 것입니다.

그대의 허무 안에서 하느님이 하느님이 되시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34. 하느님... 하느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당신은 힘 자체보다 더 강하시고, 위대함 자체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삶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비록 당신의 캄캄한 빛으로 인해 제 두 눈이 타버릴지라도, 당신의 어둠은 빛이라고 저의 삶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35. 그대의 하느님, 당혹하게 하시는 하느님, 아브라함과 이사악의 하느님이 바로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당혹감들은 때때로 죽음을 안겨주지만 성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면서 죽입니다. 때로 이 생명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며 생명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죽음처럼 여겨지기도 합

니다.

결론은 하느님은 놀라우신 분이요, 사랑과 힘의 하느님이시며 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대의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36. 하느님... 하느님... 포효하는 당신의 신비스런 폭풍 속에서 살고자 합니다. 저를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제 존재에서 당신 아닌 모든 것을 앗아가소서.

하느님... 하느님... 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게 하시고, 제 자신과 대화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당신 만이 제 영혼 안에서 말씀하소서. 당신이 말씀이시고, 당신이 응답이십니다.,. 저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제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조차 모르게 하소서.

하느님... 하느님... 당신의 생명, 그 유일한 생명을 제게 주십시오. 그 외의 다른 것들은 다 버리시고, 저의 이 비천한 거름은 당신의 사랑을 빛나게 하는 일 밖에 다른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하소서.

37. 하느님... 하느님... 당신의 사랑을 말하는 대가로 제 교만을 깡그리 없애 주소서. 폭풍이 모래를 쓸어 가고 나무 가지의 마른 잎을 휘몰아가듯, 제 존재로부터 교만을 쓸어 가소서.

38. 영혼은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찾습니다. 사랑이 마음에 틈새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즉시 그 문을 찾아냅니다. 영혼이 문을 두드리면 열립니다... 영혼은 안으로 들어가고, 첫 걸음에 문이 닫힙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아무 것도 모르는 채, 영혼은 하느님의 봉쇄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신비스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서 영혼은 때로는 위로 속에, 때로는 위로 없이 하느님의 크신 신비들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서 영혼은 자기를 잃어 버린 채, "빛도 없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며"(십자가의 성 요한) 하느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깨끗해지기 위해 소모되어 갑니다.

39. "하느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은 오직 하느님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D.Cipriano Gil) 제 삶의 가난한 그릇 안에 하느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커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가난한 저의 장막의 작은 공간을 무한에 이르기까지 넓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은 하느님 밖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40. 저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느님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벽들에 세상의 먼지가 들러붙을 때는 즉시 질식할 것만 같습니다. 오직 하느님께만 속한 자리를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1. 그대는 하느님의 것이고, 그대의 삶은 하느님이란 한마디 말로 설명됩니다. 그분께서 그대의 샘이십니다. 기억나세요? 샘은 마셔지기를 갈망하고 그대도 샘을 목말라 합니다. 미칠 듯이 목말라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42. 이 순간 제 영혼 안에 간직하고 있는 화산을 그대에게 모두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귀머거리로 만들고, 죽이고, 제 삶을 부수고 있는 절규를 모두 그대에게 전하고 싶군요. 저처럼 그대 마음 속에도 깊이 새겨져 있을 이 모든 것을 그대와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고 엮어서 더욱 강하게 되도록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그대가 이해했으면 합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이 순간 제게 표현 불가능한 것을 그분께서 직접 말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구태여 말로 표현 한다면 책임감, 온전히 부서진 삶, 소명, 사랑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3. 하느님의 이름이 전부인 이 삶이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협력이 점점 더 필요합니다.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 우리와 똑같이 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또 다시 강생하시기 위해 영혼들을 찾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대를, 저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찾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이 쓸모 없고 초라하고 가련한 인생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이 가련한 인생 뒤에

하느님이 계시다면 영원하고 변함없고 무한한 것에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44. 예, 저는 목이 탑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저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 안에 고이 간직된, 제 존재 깊숙한 곳에 불로 새겨진 그 무엇을 향해 달려 갑니다. 그러기에 저의 "달음질"은 오직 신비의 체험을 향해 나아갑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양육되는 생생한 체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존재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을 삶으로 옮기고, 영혼은 사랑으로 심연에 잠기는 것이 시급합니다.

45. 내 바위의 무한함은 티끌 같은 너를 바위로 만들고도 남는다. 나는 너를 제압할 힘이 있다. 내가

하느님이 되게 놔 두어라...! 나의 무한함이 너의 무능함을 차지하려고 한다. 네가 나보다 더 강하단 말이냐?

46. 하느님의 시간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손에 넣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은 함락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지는 시간을 가리키는 바늘이며 느낌들은 분침을 가리킵니다. 만약 의지가 전진한다면 분침은 날개 돋친 듯 날아갈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47. 하느님... 하느님... 당신의 빛이 저를 놀라게 하지만 저는 그 신비스런 궤도를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느님! 어루만지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세우고, 소멸시키기도 하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는 당신의 그 손가락들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요?

48. 당신의 영광이 저를 매혹시키어 저 자신을 잊게 해 주시기를...!

49. 그대 영혼 깊은 곳에는 하느님의 신비가 불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대는 신비의 딸, 기적의 딸, 사랑의 딸입니다. 서서히 신비가 작용하기 시작하면 영혼은 점점 더 하느님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대 허무의 심연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50. 하느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욱 메마르고, 더한 갈바리오와 골고타, 비움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바라십시오. "희망으로 가득 찬 영혼은 바라는 만큼 얻습니다"

사랑자체이신 분께서 낙천주의와 기쁨, 참 행복의 인장을 그대에게 찍어 놓으셨기 때문이십니다.

51. 언제나 곧장 앞으로 나아 가십시오. 빛에 현혹되지도 않고,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길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단 없이 그 외적 내적 헐벗음의 길을 따라 가십시오.

자신에게는 강하게 요구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원하는 것조차 원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느님의 충만 속에 살며 그대를 둘러 싸고 있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십시오.

52. 감탄은 영혼이 하느님을 발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3. 영혼을 비우십시오. 그 즉시 온통 하느님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54. 거기 무한한 신비 안에 숨어서 영혼과 허무는 빛으로 채워집니다. 그 빛은 하느님의 유일한 빛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 존재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서는 사물과 활동들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느님 ... 오직 하느님만이 남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이 되었기에 방해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우리를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모두가 하느님입니다.

55. 하느님께서 그대를 찾으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대를 추적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포르투갈의 땅에서 성모님의 발현을 원하셨던 그분께서 이제는 그대의 황무지 땅에서 신비스러운 발현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해서 메마르고 딱딱한 땅에서 해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56. 그대는 비록 갈증으로 죽을지언정 모두가 그대에게서 물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대는 꽁꽁 얼게 되더라도 모두가 그대로 말미암아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과 그대를 위한 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공허하고 추운 겨울을 받아들이십시오. 영혼들을 위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57. 서두르되 고요 하십시오. 하느님의 서두름이 그대의 서두름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요함도 그대의 고요함이 돼야 합니다. 하느님의 신비로운 고요 속에 사십시오. 거기서 하느님 내재의 신비를 만날 것입니다.

58. 우리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늑방에서 폭포수 같은 불과 성혈이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주님께서 티끌 같은 당신의 피조물을 갖고 마음대로 하실 수 없겠습니까? 오! 만일 그대가 원한다면, 그대 자신을 맡겨 드린다면... 그대는 불로 태어날 것입니다.

불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미리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원한다면 하느님 출산의 경이로운 결실을 볼 것입니다.

하느님... 하느님...! 저는 당신 불꽃의 딸... 당신 성혈의 딸... 당신의 영원과 무한의 딸... 활활 타오르는 당신 사랑의 딸...! 이 딸을 새롭게 낳아 주소서.

59. 빛... 빛이란 무엇입니까? 빛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신비 속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에 대해 말해줄 것입니다.

이는 인간적인 사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통해 직접 전달되도록 간직된 신비입니다.

60. 하느님... 하느님... 당신의 위대하심, 당신의 무한하심, 당신의 전능하심, 당신의 존재가 저를 끌어당깁니다.

하느님... 하느님... 당신의 이 작은 모래알이 당신 해변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미소한 물방울이 당신 바다 물 속에 잠기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저의 하느님, 당신 안에 영원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61. 하느님, 당신 사랑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제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온 생애를 바쳐 당신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께 말씀 드리길 원하시나요? 일치를 호소하시는 당신의 메아리가 되렵니다. 비록 제 목숨을 잃는다 해도, 당신의 작은 티끌이 가는 곳마다, 일치와 우정, 사랑과 기쁨을 심으렵니다.

당신 바위 안에 항구하게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생각들이 저를 어지럽히려 할 때는 당신을 꼭 붙들고, 저를 비우며 신비 안에 굳게 머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비록 반대되는 모든 세력들이 저를 당신에게서 떼어 놓으려 시도할 지라도요.

하느님... 하느님...! 당신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고 속속들이 그 의미를 아시나이다. 죽음 저 너머까지 제가 한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62. 영원하신 하느님, 당신의 영원한 비밀을 제게 주시고, 그 것을 제 마음 한가운데에 심으소서. 저를 영원하신 당신의 뜻, 무한하신 당신 신비의 지상 대리점으로 만드소서. 바다 속에 자라나는 해초와 같이, 견고한 생명의 바위 틈에 돋아나는 풀과 같이 당신 안에 저를 심으시고 제 안에 당신을 심으소서.

하느님... 하느님...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저의 생명 그리고 영원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불변성을 제게 주소서.

63. 하느님... 하느님... 제 삶이 초라한 갈대, 그러나 신적 음악으로 가득한 갈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하느님... 저의 갈대를 통해서 당신 사랑의 깊은 비밀들을 말씀해 주소서.

제 갈대가 당신의 피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저는 당신 신적 사랑의 지칠 줄 모르는 피리 연주자

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항상 저의 피리를 불어 주소서.

64. 그대는 정말 작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동시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사실을 그대는 알지 못합니까? 그러나 하느님은 자신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신 그분께서 그대를 만족시키실 수 없겠습니까?

65. 하느님... 하느님... 당신의 영원한 말씀 안에서 당신을 흠숭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당신 계약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피조물을 돌보시는 당신의 사랑, 당신의 충실이 저를 감동시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 손바닥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당신의 신비로운 손바닥 안에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당신의 말썽 많은 에브라임, 그러나 당신의 애정이 저의 부족함을 채워 주십니다.

하느님... 하느님... 항상 저를 채워 주시고 제 삶에 불로 새겨주신 그 영원한 사랑을 유지하도록 도와 주소서. 당신 사랑이 저를 소모시키고, 제 뼈들을 태우시고, 당신의 선하심이 저를 부드럽게 하소서.

하느님... 하느님... 언제나 저를 위한 하느님이 되어 주시고, 저를 당신의 사랑 받는 자로 만들어 주소서. 이 수동적인 참여가 능동적인 것이 되게 해 주소서. 저로 하여금 지칠 줄 모르는 당신의 연인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하느님.

66. 하느님은 의로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느님을 소유하는 것은 정확한 잣대를

소유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67. 하느님께 대한 갈망은 영혼 안에 하느님의 실재를 놓아 줍니다. 하느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분을 갈망하십시오.

68. 만일 하느님께서 포위하신다면, 영혼은 포위되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분의 포위는 우리 자신을 거스르는 싸움이고, 우리 고유의 방식과 느낌들을 거스르는 싸움입니다. 이따금씩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하느님의 신비스런 포위!

하느님... 하느님... 포위하십시오. 당신의 포위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변모시키시고, 바꾸시고 당신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소서. 당신 눈짓으로, 당신 방식으로,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그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토록 바꾸어 놓으소서. 그를 당신 것으

로 만드시고, 당신 사랑의 메아리로 만드소서.